



(1) The kitchen tap makes strange sounds.

주방 수도꼭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2) It coughs. It spits once, and then goes silent.

기침 소리가 났다. 한 번 침을 뱉더니 잠잠해졌다.

(3) "Mom," I shout out into the living room, "water is not coming out."

"엄마,"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물이 안 나와요."

(4) "Alyssa, shush!" Mom says.

"앨리사, 쉿!" 엄마가 말했다.

(5) She is watching the TV, where a news anchor is talking about the "flow crisis."

엄마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 앵커가 "물 부족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6) This is what the media has been calling the drought ever since people got tired of hearing the word "drought."

사람들이 "가뭄"이라는 단어에 지쳐버린 이후로 언론에서 가뭄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7) Now the crisis is entering a new stage. We have no running water out of the tap.

이제 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8) "To the mall!" says Uncle B	(8)	oT"	the	mall!"	savs	Uncle	Basil.
---------------------------------	-----	-----	-----	--------	------	-------	--------

"쇼핑몰에!" 바질 삼촌이 말했다.

(9) My little brother Garret and I jump in our uncle's truck.

동생 개럿과 나는 삼촌의 트럭에 뛰어올랐다.

(10) As we pull into the parking lot, we can see the crowd.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사람들이 보였다.

(11) "You two go in. I'll meet you inside," Uncle Basil says.

"너희 둘 들어가. 안에서 만나자." 바질 삼촌이 말했다.

(12) Inside it's like Black Friday at its worst — but today it's not televisions and video games people are after.

안은 마치 최악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았다. - 하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찾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이 아니었다.

(13) What I see in the carts in the checkout line are mostly water bottles.

The essentials of life.

제가 계산대 줄에서 카트에 보이는 건 대부분 생수병이에요. 생활 필수품이죠.

(14) There is a look of impatience on the faces of the people in line.

줄을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엿보였다.



(15) There is even hostility, hidden by a thin layer of politeness. Even that politeness is stretched thin.

얇은 예의범절 속에 가려진 적대감마저 느껴졌다. 그 예의범절조차 부족했다.

(16) As I approach the back of the store for water bottles, I realize I am too late. The shelves are already empty.

물병을 가지러 가게 뒤쪽으로 다가가려다 보니,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반은 이미 비어 있었다.

(17) I manage my way to the side aisle, trying my luck.

운을 시험해 보려고 옆 통로까지 간신히 다가갔다.

(18) Sometimes people place unwanted items in the wrong shelves.

때때로 사람들은 원치 않는 물건을 엉뚱한 선반에 놓기도 한다.

(19) Lucky! I find a single case of water that someone abandoned there maybe yesterday, when it wasn't such a precious commodity.

다행히도! 누군가 어제, 아니 어쩌면 그렇게 귀한 물건이 아니었던 시절에 버린 물 한 상자를 발견했다.

(20) I reach for it, only to find it pulled away at the last second by a woman.

물병을 주워 담으려 손을 뻗자, 마지막 순간에 한 여자가 물병을 가져갔다.



(21) She stacks it on top of her cart like a crown on top of her canned goods.

그녀는 통조림 위에 왕관을 씌우듯 카트 위에 물병을 얹었다.

(22) "I'm sorry, but we were here first," she says. And then her daughter steps forward — a girl I recognize from soccer — Hali Hartling.

"미안하지만, 우리가 먼저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 그녀의 딸이 앞으로 나왔다. - 내가 축구부에서 아는 여자아이 -할리 하틀링이었다.

(23) As her mother pulls their cart away, Hali leans closer to me.

"I'm sorry about that, Alyssa."

엄마가 카트를 끌고 가자, 할리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미안해, 앨리사."

(24) "Didn't I share my water with you at the practice last week?" I point out to her.

지난주 연습 때 너랑 물 나눠 마시지 않았어?" 나는 할리를 가리켰다.

(25) "Maybe you could return the favor and share a few bottles with me."

"너도 은혜를 갚아서 몇 병 나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26) She looks back to her mother, who's already moving down the aisle, then turns back to me shaking her head.

할리는 이미 통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엄마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27) And then she gets a little bit red in the face, and turns to leave before it becomes a deep flush.

그러고 나서 얼굴이 조금 붉어지더니 얼굴이 붉어지기 전에 나가려고 돌아섰다.

(28) I look for Garret, whom I find in the frozen aisle.

나는 얼린 음식 통로에서 개럿을 찾았다.

(29) Then I see something. Just past the frozen vegetables and ice cream, there is a case packed with ice.

그때 무언가가 보였다. 얼음 채소와 아이스크림을 지나자 얼음이 가득 든 상자가 있었다.

(30) I open the door and reach for a bag. "What are you doing? We need water, not ice," he reminds me.

나는 문을 열고 얼음 봉지를 꺼냈다. "뭐 하는 거야? 얼음이 아니라 물이 필요해." 그가 내게 일깨워 주었다.

(31) "Ice is water. Just help me," I tell him.

"얼음은 물이야. 나 좀 도와줘." 내가 말했다.

(32) Garrett and I put one bag of ice after another into our cart, until it is piled as high as it can get.

개럿과 나는 얼음 봉지를 하나씩 카트에 넣었다. 얼음이 더 높이 쌓일 때까지.



(33) By now other people have taken notice and begin to empty the ice case.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고 얼음 상자를 비우기 시작했다.

(34) The cart is ridiculously heavy now, and almost impossible to push.

이제 카트는 말도 안 되게 무거워서 거의 밀 수가 없었다.

(35) Then, a man in a business suit comes up behind us. He smiles.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리 뒤로 다가왔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36) "Looks like you could use some help."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37) He doesn't wait for us to answer before grabbing the cart's handle.

그는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트 손잡이를 잡았다.

(38) "Thank you for helping us," I tell him. "Not a problem. We all need to help one another."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서로 도와야 하니까요."

(39) He smiles again, and I return the smile.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나도 똑같이 미소를 지었다.



(40) It is good to know that difficult times can bring out the best in people.

힘든 시기가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건 좋은 일이다.

(41) I decide that one favor deserves another.

나는 호의는 다른 호의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했다.

(42) "Why don't you take a bag of ice for yourself," I suggest.

"얼음 한 봉지 가져가세요." 내가 제안했다.

(43) His smile does not fade. "I have a better idea," he says.

그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Why don't you take a bag of ice for yourselves, and I'll keep the rest."

"당신이 얼음 한 봉지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가져갈게요."

(45) For a moment I think he is joking, but then realize he is serious.

"Excuse me?"

잠시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곧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라고요?"

(46) He is still smiling, but his eyes scare me.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다.



(47) As long as his hands are firmly locked on the handle of our cart, there is nothing to prove that it's ours and not his.

그의 손이 우리 카트 손잡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한, 그것이 우리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48) "Is there a problem here?"

"여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49) It is Uncle Basil. He has arrived just in time. "Not at all."

바질 삼촌입니다. 그는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전혀요."

(50) The man looks at the ice with a bitter face, then leaves.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얼음을 바라보더니 떠났다.

(51) *The above is a shortened version of the opening of the novel Dry (2018).

*위는 소설 Dry(2018)의 서두를 축약한 것이다.

(52) It tells the story of a girl who has to make tough choices for her family during a disastrous California drought.

캘리포니아의 끔찍한 가뭄 속에서 가족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53) Her unwanted adventure ends when the water supply resumes and life is back to normal.

그녀의 원치 않는 모험은 물 공급이 재개되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끝난다.



(54) Provided that the factors contributing to water shortages worldwide are not addressed, including climate change, population growth, and using too much water for agriculture, it is possible that this story can become a reality.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농업용수 과다 사용 등 전 세계적인 물 부족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Hunger Stones



(1) In the summer of 2022, during the worst drought in 500 years in Europe, a stone known as a "hunger stone" was found in a Czech town along the Elbe River.

2022년 여름, 유럽에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던 중, 엘베 강변 체코 마을에서 "헝거 스톤(Hunger Stone)"이라는 이름의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2) The stone had a sentence written on it that read: "If you see me, then cry." The hunger stones, found in rivers across central Europe, typically remain underwater.

이 돌에는 "나를 보면 울어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부 유럽 전역의 강에서 발견되는 이 헝거 스톤은 보통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3) However, when droughts occur and water levels retreat, these stones become visible.

하지만 가뭄이 발생하고 수위가 낮아지면 이 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 The stone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bear records of the past severe droughts.

이 돌들은 과거의 극심한 가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5) Droughts cause reduced harvests, food shortages, and hunger, especially for the poor.

가뭄은 수확량 감소, 식량 부족,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초래합니다.

(6) The words on the hunger stones are believed to warn of these hardships and to urge people to be prepared.

헝거 스톤에 적힌 글귀는 이러한 고난을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7) Considering the continuation of climate change, experts warn that the situation we face is not just a simple, occasional drought but a severe drought that could persist for decades.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인 가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이라고 경고합니다.

(8) The United Nations has predicted that by 2050, 75 percent of the global population could suffer from the effects of drought unless significant action is taken to address climate change.

Source The Guardian. 2022. 5. 19.

유엔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5%가 가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